



新羅中代 華嚴學僧 表訓考

A Study on a Great Monk Pyohun of Hwaemjong in the Middle Period of Silla

저자 김상현
(Authors) Kim, Sang-hyun

출처 [한국고대사탐구 14](#), 2013.8, 255-276 (22 pages)
(Source)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14](#), 2013.8, 255-276 (22 pages)

발행처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ublisher)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48178>

APA Style 김상현 (2013). 新羅中代 華嚴學僧 表訓考. 한국고대사탐구, 14, 255-276.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7/28 14: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中代 華嚴學僧 表訓考

김 상 현*

- I. 머리말
- II. 表訓, 義相門下에서의 수업
- III. 表訓과 皇福寺, 그리고 華嚴 강의
- IV. 表訓과 大正, 그리고 景德王
- V. 맺는말

【국문초록】

表訓은 신라중대 불교사에서 주목할 만한 고승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자료는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어서 그의 생애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표훈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는 義相이 부석사를 창건하고 傳敎에 전념하기 시작했던 문무왕 16년(676)으로부터 경덕왕대(742 - 765)까지 거의 100년에 걸쳐서 散見되기에 문제가 된다. 이런 등의 문제로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가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대두했다. 과연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가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의상과 표훈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고, 표훈의 생존 시기와 중요한 활동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신라 중대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을 고찰하고자 했다.

표훈은 의상으로부터 직접 수업한 10대 제자 중의 한 명이다. 이 사실은 『大記』 및 『古記』가 전하는 표훈과 의상의 문답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표훈의 활동이 돋보이는 시기는 8세기 중반인 경덕왕(742 - 764) 때다. 그는 750년 무렵에 황복사에서 大正을 만났고, 757년 무렵에는 경덕왕을 만났으며, 760년에는 황복사에서 화엄을 강의했다. 표훈이 의상 문하에서 수업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덕왕 때 그의 나이는 70대, 혹은 80대 정도의 노령이었을 것이다. 의상이 돌아간 702년에 표훈의 나이가 20세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가 황복사에서 강의하던 때는

* 동국대 명예교수

(이 논문을 투고 후 며칠이 되지 않아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

78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표훈은 장수했던 것 같다. 표훈은 김대성의 불국사 창건에도 적극적으로 자문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얻어 후사 잇기를 열망하고 있던 경덕왕에게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신라의 마지막 聖人(聖人)으로 존송되기도 했다. 표훈이 興輪寺 金堂의 十聖 중의 한 분에 포함되었던 것도 신라 중대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높은 位相 때문이었다.

주제어 : 표훈(表訓), 의상(義相), 대정(大正), 경덕왕(景德王), 불국사(佛國寺), 황복사(皇福寺)

I. 머리말

表訓은 신라불교사에서 주목할 만한 고승이다. 그는 義相의 上足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興輪寺金堂十聖 중에 포함되었던 고승이고, 景德王의 後嗣 문제에도 관여하고 佛國寺와도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자료는 『삼국유사』, 『十句章圓通記』, 『法界圖記叢髓錄』 등에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어서 그의 생애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표훈의 활동은 義相(625 - 702)이 생존했던 시기로부터 景德王代(742 - 765)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등의 문제로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가 아니고, 원래는 유가종에 속한 승려였다가 화엄종으로 전향한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했다.¹⁾ 따라서 표훈이 의상의 직제자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된 셈이다. 필자는 표훈이 의상의 직제자가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간략하지만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²⁾

1) 김복순은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1990, 49~56쪽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1994년에는 「表訓」 『伽山學報』3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은 그의 『한국고대불교사연구』, 민족사, 2002에 재수록 했다.

2) 김상현, 「삼국유사 의상 관계 기록의 검토」 『사학지』28, 1995.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의상과 표훈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되, 표훈의 생존 시기와 중요한 활동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신라 중대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表訓, 義相門下에서의 수업

의상은 제자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태백산 浮石寺와 태백산의 大蘆房,³⁾ 그리고 소백산의 錐洞 등지에서 제자들에게 화엄을 강의했다. 어떤 때는 그가 지은 『法界圖』를 가르치고, 또 어떤 때는 『화엄경』을 강의했으며, 法藏이 보내온 『探玄記』를 해석하기도 했다. 浮石山에서 四十日會를 개최하기도 했고,⁴⁾ 추동에서는 90일 동안이나 강의에 전념하기도 했다.⁵⁾ 의상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十大弟子는 더욱 유명했다. 『삼국유사』 의상전교조에 의하면, 그의 제자에는 悟眞, 智通, 表訓, 眞定, 眞藏, 道融, 良圓, 相源, 能仁, 義寂 등 10명의 大德이 영수가 되었는데, 모두 亞聖이며 각기 전기가 있다고 했다. 이들 십대제자는 十聖弟子로 불리기도 했고,⁶⁾ 朴寅亮은 海東華嚴始祖浮石尊者讚에서 十聖傳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⁷⁾ 『宋高僧傳』 중의 의상전에서는 智通, 表訓, 梵體, 道身 등을 登堂視奧者라고 했고,⁸⁾ 그리고 崔致遠은 『法藏和尚傳』에

3) 『法界圖記叢髓錄』卷下之二(『大正藏』45, 758a쪽)

4) 『法界圖記叢髓錄』卷上之二(『大正藏』45, 742b쪽)

5) 『삼국유사』권5, 진정사효선쌍미조.

6) 均如, 『釋華嚴教分記圓通鈔』, 『한국불교전서』4, 239c쪽.

7) 『한국불교전서』4, 632b쪽.

8) 梵體는 의상의 직제자로 보기 어렵다. 의상의 강의를 기록한 『道身章』 2권을 남긴 道身이 의상의 직제자였을 것임은 확실하다.

서 眞定, 相圓, 亮元, 表訓 등을 특별히 의상의 뛰어난 제자로 강조했다.⁹⁾ 일본의 凝然(1240 - 1321)도 1295년에 지은 『華嚴法界義鏡』에서 의상에게는 眞定, 相圓, 亮元, 表訓 등 四英이 있었는데, 이들을 上足이라고 한다고 했다.

의상의 여러 제자 중에서도 표훈은 上足에 해당했다. 그런데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가 아니라 의상의 法孫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문제가 된다. 신라시대의 大德은 나이 50세가 되면 7년을 기한으로 임명하던 僧職이기에 750년대에 大德을 지낸 표훈이 태어난 시기는 700년 무렵이 되고, 따라서 그는 702년에 돌아간 의상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¹⁰⁾ 이 주장의 핵심적 근거이다. 그러나 표훈이 의상의 상족 제자였다는 여러 자료들을 모두 믿지 않은 채, 오직 大德이라는 僧職은 50세에 7년을 기한으로 임명되었다는 자료와 표훈이 경덕왕 때에 대덕이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만을 중시하여, 표훈이 의상의 제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表訓大德이라는 표기에서의 大德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僧職으로만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大德은 尊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승직과 상관없이 덕행이 높은 승려를 대덕이라고 존칭하는 경우가 있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에는 젊고 나이가 아래인 비구는 어른이고 나이 많은 비구에게 그 씨족과 성명을 부르지 않고 대덕이라고 하거나 혹은 구수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¹¹⁾ 이처럼 대덕은 승직과 상관없이 존칭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法界圖記叢髓錄』 등에는 眞定大德, 法融大德 등의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 경우의 대덕이 반드시 승직으로 사용된

9) 『한국불교전서』3, 775c쪽.

10) 김복순, 앞의 책, 2002, 137쪽.

11)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권38, 『大正藏』24, 399a쪽.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표훈, 진정 등 10여 대덕이 (의상)화상을 따라서 『法界圖印』을 배웠다는 『大記』의 十餘德¹²⁾ 운운은 승직과는 무관하게 존칭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訓德 혹은 表訓德 등의 德도 승직으로서의 大德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존칭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나이 50세가 되어야 大德에 임명할 수 있고 7년을 기한으로 정했다는 崔致遠의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중의 내용도¹³⁾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덕이라는 승직이 신라에서 엄격하게 시행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치원이 쓴 기록 중에서도 大德에 관해서 언급한 이 기록만을 신빙하고, 『法藏和尚傳』에서 표훈이 의상의 四英 중의 한 명이었다고 한 최치원의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록은¹⁴⁾ 오히려 믿지 않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김복순에 의하면, 의상은 부석사에 상주하면서 화엄을 강의하였고, 진정·지통·오진 등의 제자들은 부석사와 관련을 맺고 있지만, 표훈만은 태백산 내지는 소백산, 부석사 등지에 거주하면서 의상의 법을 이은 사실이 전혀 없다¹⁵⁾고 한다. 그러나 표훈은 의상으로부터 『法界圖』를 직접 배웠고, 스승을 면대해서 질문한 경우도 있다. 表訓, 眞定 등 10여 명의 제자가 의상으로부터 『法界圖印』을 배웠다는 다음의 기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大記』에서 말했다.

12) 『法界圖記叢錄』 卷上之一(『大正藏』45, 721a쪽).

13) 崔致遠,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동문선』 권64.

14) 물론 『法藏和尚傳』의 경우, 의상의 뛰어난 제자 四英을 거론하면서 眞定, 相圓, 亮元, 表訓 등의 이름은 細註로 기록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凝然(1240 - 1321)의 『華嚴法界義鏡』에도 眞定, 相圓, 亮元, 表訓 등을 의상의 四英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법장화상전』의 세주 또한 최치원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15) 김복순, 앞의 책, 2002, 148쪽.

- ① 표훈, 진정 등 10여 대덕이 (의상)和尙이 계신 곳에서 이 印을 배울 때, 이렇게 물었다. “움직이지 않는 내 몸이 곧 法身 자체라고 하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和尙은 곧 ‘諸緣根本我 一切法源心 語言大要宗 眞實善知識’이라는 四句偈로 답했다. 그리고 “자네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써야 한다”라고 하셨다. 표훈덕은 五觀을 지어서 해석했는데, 一實相觀, 二無住觀, 三性起觀 四緣起觀, 五因緣觀이 그것이다. …… 이와 같은 5관을 지어서 화상에게 드렸더니, 화상께서는 옳다고 하셨다. …… 眞定德은 三門을 지어서 해석했는데, 一理事具德門, 二事融現理門 三修行增長門이 그것이다. 이 3문에 表訓德은 不動建立門을 추가하여 四門으로 하였다. ……
- ② 또 四滿義로 科分하면 證分四句는 行實滿義요, 眞性甚深 이하는 證滿義이며, 初發心時 이하는 法滿義고, 是故行者 이하는 人滿義이다. 이 말씀도 역시 표훈덕의 뜻이다. 上元元年에 皇福寺에서 설하신 것이다.¹⁶⁾

『法界圖記叢髓錄』에서 인용하고 있는 『大記』는 9세기 중엽 이후의 신라 하대에 쓰여진 것으로 짐작된다.¹⁷⁾ 김복순은 『대기』 중의 이 기록 중 표훈 등이 의상화상으로부터 『법계도인』을 배웠다거나 표훈이 五觀을 지어 의상화상에게 드렸더니 화상이 옳다고 했다는 등의 기록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이 기록의 사료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①와 ②를 연결하여 이 기록은 의상 사후인 上元 원년(760)에 표훈이 四滿義를 설했다는 것을 신빙하면서 표훈이 의상에게 직접 화엄을 배웠다는 기록은 믿

16) ① 表訓眞定等 十餘德 從和尙所學此印時 問云 不動吾身卽是法身自體之義 云何得見 於是和尙卽以四句偈子而答之云 諸緣根本我 一切法源心 語言大要宗 眞實善知識 仍云 汝等當善用心耳 表訓德作五觀釋 一實相觀 二無住觀 三性起觀 四緣起觀 五因緣觀也 …… 作此五觀以呈和尙 和尙曰 是也 眞定德作三門釋 一理事具德門 二事融現理門 三修行增長門 於此三門 表訓德加不動建立門爲四門也 …… ② 又四滿義科 則證分四句行實滿義 眞性甚深下證滿義 初發心時下法滿義 是故行者下人滿義 此辭亦是訓德之義 上元元年在皇福寺說也 (『法界圖記叢髓錄』 卷上之一 : 『大正藏』45, 721a~b쪽)

17) 줄저, 『신라화엄사상사』, 민족사, 1991, 43쪽.

지 않는다. 全海住도 ①와 ②를 연결하고, 또 상원 원년을 674년에 비정하여 문무왕 14년(674) 황복사에서 표훈 진정 등 10여 德이 의상으로부터 법계도를 배웠다고 해석하고, 부석사가 창건된 676년(문무왕 16) 이후에 眞定이 출가했다는 기록까지 의심한다.¹⁸⁾

그러나 앞에 인용한 『대기』의 기록은 ①와 ②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의 사실을 전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①은 표훈 등이 의상으로부터 직접 『법계도인』을 배우던 때에 관한 기록이고, 又로 시작되는 ②는 표훈이 황복사에서 四滿義에 대해 설한 내용의 기록이다. 따라서 당시의 상원 원년은 674년이 아니라 76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대기』의 ①과 ②의 기록은 서로 다른 시기에 행해진 강의록을 함께 서술했는데, 표훈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의 ①과 ②의 기록은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①에서는 표훈이 五觀을 지어서 和尚에게 드렸더니 화상이 옳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당시에 표훈이 의상에게 드렸던 五觀頌¹⁹⁾은 다음과 같다.

我是諸緣所成法	나는 모든 緣이 이루는 법이니,
諸緣以我得成緣	모든 연은 나로서 연을 이룬다.
以緣成我我無體	연으로 이루어진 나에겐 실체가 없으니,
以我成緣緣無性	나로 이루어진 연에는 자성이 없다.
諸法有無本來一	제법의 유와 무는 본래 하나,
有無諸法本無二	유무 제법이 본래 둘이 아니다.
有時非有還同無	있을 때는 있음이 아니니 도리어 없음과 같고,
無時非無還同有	없을 때는 없는 것이 아니니 도리어 있음과 같다.
諸法本來不移動	모든 법 본래 이동하지 않으니,
能觀之心亦不起	능히 관찰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는다.

18) 全海住, 『의상 화엄사상사 연구』, 민족사, 1993, 101쪽.

19) 『法界圖記叢錄』卷上之一, 『大正藏』45, 721쪽.

앞에 인용한 『대기』의 ①의 기록에는 표훈이 의상 문하에서 수업하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이 돋보인다. 물론 이 때의 和尙이란 의상을 존칭한 것이다. 표훈과 스승 의상 사이에 있었던 문답은 『法界圖記叢髓錄』에 인용된 『古記』의 다음 기록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古記』에 이런 기록이 있다.

표훈대덕이 의상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을 無住라고 합니까?”

和尙이 말했다.

“곧 우리 凡夫 五尺의 몸이 三際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머무름이 없대[無住]고 한다.”

또 물었다.

“만약 三際에 따라 나눈다면 여러 종류의 五尺이 됩니까?”

화상이 말했다.

“이는 因緣으로써 된 五尺이기에, 하나를 원하면 곧 하나가 되고 많은 것을 원하면 많은 것이 된다.”

또 물었다.

“만약 三際가 不動하다고 하면 有住입니까?”

화상이 말했다.

“만약 五尺의 머무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장래에 有住와 無住를 내가 당연히 說하겠다.”²⁰⁾

『法界圖記叢髓錄』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는 대개 9세기 중엽 이후 어느 때의 저술로, 의상계 신라 화엄학승의 설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에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²¹⁾

20) 古記云 表訓德問和尙言 云何無住 和尙曰 卽我凡夫五尺身 稱於三際而不動者是無住也 問若約三際分之 則多種五尺耶 和尙云 以是緣之五尺故 須一卽一 須多卽多也 問若稱三際而不動者 卽有住耶 和尙曰 若不見五尺住處 將來有住無住 我當說也 (『法界圖記叢髓錄』卷上之一, 『大正藏』45, 721c쪽)

이처럼 『고기』나 『대기』 등에 보이는 의상과 표훈 사이의 문답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자 표훈과 스승 의상이 주고받았던 문답을 전해 주는 『고기』나 『대기』의 자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 표훈의 생존 시기를 700 - 760년 전후의 시기로 보는 김복순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 표훈과 관계되어 나오는 내용은 가탁되거나 윤색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²²⁾ 그리고 그는 표훈이 직접 의상에게 『일승법계도』를 배운 것처럼 서술한 『대기』의 기록은 윤색이라고 하면서 『대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대기』는 표훈계의 僧들이 표훈을 드러내기 위해 쓴 저술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표훈계의 저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대기』에는 순서상 뒷부분에 놓아야 하는 표훈의 이름을 眞定보다도 먼저 내놓는 등 그를 부각시켜 의상계에서의 그의 위치를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²³⁾

김복순의 『대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표훈은 의상의 직제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대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료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일 수 없다는 김복순의 견해에 의하면, 표훈과 의상의 문답을 수록하고 있는 『고기』의 기록도 윤색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를 가탁이나 윤색이라고 볼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法界圖記叢籠錄』에 인용되어 전하는 『대기』 및 『고기』의 표훈과 의상의 문답 기록을 통해 표훈이 의상의 직제자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1) 졸저, 앞의 책, 1991, 46쪽.

22) 김복순, 앞의 책, 2002, 137쪽.

23) 김복순, 앞의 책, 1990, 55쪽.

Ⅲ. 表訓과 皇福寺, 그리고 華嚴 강의

표훈은 8세기 중반인 경덕왕 때에 王京의 皇福寺에 머문 적이 있다. 그런데 김복순에 의하면, 표훈은 황복사에 주석하던 유가대덕이었는데, 760년경에 화엄으로 전향한 것이라고 한다.²⁴⁾ 즉 황복사는 유가계 사찰이고, 황복사에 주석한 표훈은 유가계 승려라는 것이다. 706년(성덕왕 5)에 조성된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에는 神穆太后와 孝昭大王은 宗廟의 신성한 영령을 위해 禪院伽藍에 三層石塔을 세운다는 기록이 보인다.²⁵⁾ 김복순은 황복사를 선원가람이라고 한 이 명문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는 유가의 여러 승려들을 모두 禪師라고 불렀다²⁶⁾는 기록과 관련지어 선원가람을 유가의 선사들이 머물렀던 가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황복사는 유가사찰이라고 보았다.²⁷⁾ 그러나 유가의 승려들을 선사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들이 머물던 사찰까지도 선원가람이라고 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표훈이 황복사에 주석했던 사실은 大正角干이 황복사의 표훈대덕을 방문하여 화엄의 三種三昧에 대해 배웠다는 기록과 그가 上元 원년(760)에 황복사에서 法性偈를 四滿義에 따라 분류하고 해석했다고 하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大正角干이 황복사의 表訓大德을 방문해서 三本定에 대해 배움을 청했다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옛말에 이렇게 전해온다. 表訓大德이 皇福寺에 있을 때, 大正角干이 표훈대덕의 房에 나아가 아뢰기를, “請컨데 三本定을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표훈대덕은 대중을 방밖으로 나가도록 명했다.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續綸스님은 문을 나가 창가에서 었들었다. 그

24) 김복순, 앞의 책, 1990, 52쪽, 56쪽.

25) 황수영,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1976, 140쪽.

26) 『삼국유사』 권3, 원종홍법 염축멸신조.

27) 김복순, 앞의 책, 2002, 122쪽, 170쪽.

때에 표훈대덕이 말씀하기를 ‘一時佛’이란 佛華嚴定の 經文이고, ‘始成正覺’은 海印定の 經文이며, ‘坐師子座’라는 것은 師子奮迅定の 경문이라고 했다.²⁸⁾

均如(923 - 973)의 『十句章圓通記』에 전하는 이 기록에 의하면, 대정과 표훈은 화엄사상에 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문답을 나누고 있다. 대정이 황복사의 표훈을 방문한 시기는 그가 侍中職에서 물러난 750년 직후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표훈이 경덕왕 19년(760)에 황복사에서 설했다는 四滿의 뜻에 의한 법성계의 과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4구 (法性圓融無二相 ~ 證智所知非餘境) → 行實滿
- 5~14구 (眞性甚深極微妙 ~ 仍不雜亂隔別成) → 證滿
- 15~22구 (初發心時便正覺 ~ 衆生隨器得利益) → 法滿
- 23~30구 (是故行者還本際 ~ 舊來不動名爲佛) → 人滿

경덕왕 19년에 표훈이 황복사에서 강설하고 있었던 것은 역시 의상의 法性偈였다. 표훈은 일찍이 法性偈를 不動建立門, 理事具德門, 事融現理門, 修行增長門 등의 四門으로 科分한 적도 있다. 즉 법성계 30구를 四門으로 과분하여 證分の 4구절은 부동건립문, 그 다음 14구는 이사구덕문 및 사용현리문, 그 뒤의 다른 구절은 수행증장문으로 나눈 적이 있다.²⁹⁾ 이처럼 표훈은 의상으로부터 法性偈를 배운 후 만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28) 均如, 『十句章圓通記』卷下 (『韓國佛教全書』4, 63쪽).

‘古言表訓大德在皇福寺時 大正角干 進於訓德房中自言 講學三本定焉 於是訓德 教令大衆 並出房外 餘人並出去 而續綸師 出戶立窓邊而傾耳 時訓德言 一時佛者 佛華嚴定經文也 始成正覺者 海印定經文也 坐師子座者 師子奮迅定經文也.’

29) 『法界圖記叢錄』卷上之一 : 『大正藏』45, 721a쪽.

연구하고 강의했던 것이다.

황복사에 주석하던 표훈과 관련된 이상의 두 자료는 모두 표훈이 화엄을 설한 내용이다. 이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복순의 견해와 같이 황복사가 유가사찰이고 표훈도 유가대덕이었다면, 그는 왜 황복사에서 유가가 아닌 화엄을 설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복순은 760년경에 표훈은 화엄으로 전향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유가승인 표훈이 유가사찰인 황복사에서 대중이 있는 가운데 화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에 방에 있던 이들을 모두 내보낸 것이라고도 한다.³⁰⁾

그러나 표훈은 유가계 승려였던 적이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표훈은 의상이 입적하기 전에 의상의 문하에서 직접 화엄을 수업했던 직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상의 직제자 표훈이 주석하면서 화엄을 강의하고 있던 8세기 중반경의 황복사는 오히려 화엄종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황복사는 의상이 출가했던 사찰이다. 그리고 의상은 훗날에도 황복사에 머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의상은 황복사에 있을 때 무리들과 함께 탑을 돌았는데, 언제나 허공을 밟고 올라갔으며 층계는 밟지 않았으므로, 그 탑에는 사다리를 놓지 않았다. 그 무리들도 층계에서 석 자나 떠서 허공을 밟고 돌았으므로, 의상은 그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반드시 괴이하다 할 것이니 세상에 교훈될 것은 못된다.”³¹⁾

의상과 그 제자들이 허공을 밟으며 탑을 돌았다는 이 기록에는 의상과 그 제자들의 신이한 法力이 강조되어 있다. 아무튼 이 기록에 의하면, 의

30) 김복순, 앞의 책, 1990, 53쪽.

31) 『삼국유사』권4, 의상전교조.

상과 그 제자들은 황복사에 머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주로 부석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의상이 경주 황복사에 오래 머물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출가 사찰인 황복사에 잠시라도 머물렀을 가능성은 있다.

표훈의 화엄학 관련 저서는 전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저서명조차 확인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화엄 관련 그의 설은 여러 곳에 인용되었다. 표훈의 설은 『法界圖記叢髓錄』 중의 『대기』에 5회, 그리고 『고기』에 1회 인용되었고, 均如의 여러 저서에 8회가 인용되었다. 즉 『十句章圓通記』에 4회, 『華嚴經三寶章圓通記』에 2회, 『釋華嚴旨歸章圓通鈔』에 1회, 『釋華嚴教分記圓通鈔』에 1회가 인용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표훈의 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표훈의 逸文이 있다.

1. 표훈은 五種生滅을 말한 바 있다. 즉 遍計生滅, 因緣生滅, 緣起生滅, 性起生滅, 無住生滅이다(『法界圖記叢髓錄』 下卷 1).
2. 表訓大德의 뜻은 곧 眞은 머무름 없는 本法이고, 性은 本分種이다. 본분종자란 만약 경문에서 설한 곳을 가리키면 初會의 果地의 五海이다. 이 오해로써 本識의 체를 삼으며, 이 본식을 기준으로 하여 뒤의 여러 모임 가운데서 혹은 種性이라 하고, 혹은 行業이라 하며, 혹은 願善決定 등이라 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만약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바로 證分에 의지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이 바로 곧 法性임을 증득한다. 그러니 이 증득한 곳은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기 때문에 중하근기 사람은 믿지 못하므로 五海가 바로 그대 본식의 근원이라고 설하니, 이로써 앞의 근기가 자기의 몸과 마음이 곧 법성임을 안다(『法界圖記叢髓錄』 上卷 1).
3. 古辭에 의하면, 표훈대덕은 “푸줏간의 백정은 백정질 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보현의 광대한 행원이다. 그러므로 칼로 벨 때는 安住의 법문을 얻게 하고 불로 지질 때는 照明의 법문을 얻게 하는 것이라 했다.”고 한다(『釋華嚴旨歸章圓通鈔』 下卷).
4. 표훈은 이렇게 해석했다. 왼쪽에 세운 그림은 見聞이고, 오른쪽에 세운 그림은 解行이고, 아래쪽에 가로 막은 그림은 證入이다. 또 오른쪽 그림은 견문이고, 왼쪽의 그림은 해행이고, 안쪽 위의 그림은 부처를 보는 것이고, 아래의 그림은 부처의 명호이다. 3생을 거친 사람이라야 비로소 부처의 명

호를 얻는다(『華嚴經三寶章圓通記』上卷).

5. 상즉의 4구 중에서 훈대덕은 처음의 2구는 초교이고, 제3구는 종교와 돈교이고, 제4구는 원교라고 했다(『華嚴經三寶章圓通記』下卷).
6. 訓德은 相成門의 세 교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기를, 초회는 돈교이고, 다음의 다섯 법회는 점교이며, 뒤의 두 회는 원교라고 하였다(『釋華嚴教分記圓通鈔』 권2).

이처럼 표훈의 화엄에 관한 여러 逸文이 전하고 있지만, 유가에 관한 표훈의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점 또한 표훈이 유가로부터 화엄으로 전향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IV. 表訓과 大正, 그리고 景德王

大正角干이 황복사의 表訓大德을 방문해서 三本定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한 표훈이 답한 내용에 대한 기록은 이미 앞에서 소개했다. 大正은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한 金大城과 동일한 인물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현종 15년(1024년)에 작성된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의 신라 제35대 景德大王朝의 相公인 大城角干 운운의 기록은 大城의 관등이 角干이었음을 알려 주고, 동시에 大正과 大城이 동일인물이란 점을 시사해 준다.

대정은 경덕왕 4년(745) 5월부터 경덕왕 9년(750) 1월까지 侍中職에 있었다. 그가 侍中에 임명될 때의 관등은 2관등인 伊滄이었다.³²⁾ 그런데 표훈을 방문할 때는 17관등과는 별도로 정해진 최고 관위의 하나인 角干이다. 이 점에 유의하면, 아마도 대정이 표훈을 방문한 시기는 그가 시중

32)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4년조.

직에서 물러난 750년 직후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김대성은 시중직에서 물러난 다음 해인 751년부터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하기 시작한다. 김대성의 불국사 조성 계획이나 그 실행 과정에는 표훈의 자문이나 영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佛國寺의 원래 이름은 華嚴佛國寺였다. 이것은 『圓宗文類』에 수록된 崔致遠의 「阿彌陀佛像讚」³³⁾ 중에서 ‘東海東山有佳寺 華嚴佛國爲名號’라고 한 구절로 확인된다. 華嚴佛國이란 『화엄경』에서 그리고 있는 불국세계다. 화엄의 불국세계는 三昧를 통해서 출현한다. 따라서 大正이 表訓에게 물어서 배웠던 화엄의 3종 삼매와 절 이름 화엄불국은 교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불국토는 國土海와 世界海로 구분되고, 그리고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海印三昧·佛華嚴三昧·師子奮迅三昧 등의 三種三昧는 각각 體·相·用에 해당되는데, 石佛寺가 해인삼매에서 현현되는 佛 內證의 세계로 體에 해당한다면, 불국사는 師子奮迅三昧를 통해서 나타나는 佛 外向의 세계로 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³⁴⁾

표훈은 蓮華藏世界, 世界海, 國土海 등 화엄의 불국세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즉 그는 “첫 회상의 華藏世界는 遍計의 땅일 뿐 실다운 法體는 없다.”고 했다.³⁵⁾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사바는 華藏을 근본으로 삼고, 華藏은 世界海를 근본으로 삼고, 世界海는 國土海를 근본으로 삼고, 國土海는 不可說을 근본으로 삼고, 불가 설은 不可說不可說을 근본으로 삼는다.³⁶⁾

33) 의천, 『원종문류』권22 (『한국불교전서』4, 647쪽).

34) 졸저, 앞의 책, 1991, 211쪽.

35) 『십구장원통기』 상권.

36) 『십구장원통기』 하권.

화엄불국에 대한 표훈의 이와 같은 언급으로 볼 때, 김대성이 구상했던 화엄불국사의 조영 계획은 표훈의 자문과 영향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삼국유사』 義湘傳教條에 의하면, 표훈은 불국사에 살면서 항상 天宮을 왕래했다고 한다. 그리고 大城孝二世父母條에도 김대성은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하여 神琳과 表訓 두 聖師를 청해서 각각 거주하게 했다고 한다. 『불국사고금창기』에는 불국사에 표훈의 부도가 전한다고 했다.³⁷⁾ 이상의 여러 기록으로 볼 때 불국사 창건에 표훈은 깊이 관여했던 것 같다. 물론 완성된 이후의 불국사에 표훈이 주석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의상이 업적한 702년에 표훈의 나이를 20세로 가정해 보아도 불국사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김대성이 죽은 774년에 표훈은 이미 90세가 넘기 때문이다.

경덕왕은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표훈에게 기원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표훈이 上帝에게 청하여 태자를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가 곧 8세에 즉위한 惠恭王이라는 설화가 전한다.³⁸⁾ 경덕왕(742 - 764)은 順貞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는데, 곧 三毛夫人이다. 왕은 2년(743) 4월에 다시 各 金義忠의 딸을 後妃로 맞아서 滿月夫人이라고 했다. 왕비에게도 후비에게도 後嗣 소식이 없었다. 이 일로 왕은 三毛夫人을 出宮시켰다. 아들에게 왕위 물려주기를 열망하던 경덕왕은 고승의 法力을 빌려서라도 그의 희망을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表訓을 궁중으로 초청하여 부탁했다.

“짐은 복이 없어서 뒤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上帝에게 청하여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표훈이 天帝에게 올라가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상제가 말씀하기를, 딸을 구한다면 가능하지만 아들은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37) 『佛國寺古今創記』(『불국사지』, 아세아문화사, 50쪽).

38) 『삼국유사』 권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

왕이 말했다.

“딸을 아들로 바꾸어 주기를 바라오.”

표훈이 다시 천제에게 올라가 그와 같이 청했다.

천제는 말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들이 되면 나라가 위태롭다.”

표훈이 내려오려 할 때에 천제가 다시 불러 말했다.

“하늘과 사람 사이는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스님은 이웃 마을처럼 왕래하여 天機를 누설하니, 지금부터 다시는 다니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훈이 내려와서 천제의 말로써 曉諭했다.

왕은 말했다.

“나라가 비록 위태롭더라도 아들을 얻어 뒤를 이을 수만 있다면 만족 하겠다.”

그 후 滿月王后가 태자를 낳음에 왕은 매우 기뻐했다.³⁹⁾

태자 8세 때 경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는 왕위에 올랐는데, 곧 혜공왕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경덕왕은 돌아가기 8년 전에 표훈을 만난 것이 되는데, 대개 경덕왕 16년(757) 경이 된다. 이 무렵에 표훈은 皇福寺에 있었을 것이다. 760년(경덕왕 19)에도 이 절에서 四滿義에 대해 강의한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⁴⁰⁾

후사를 얻고자 하는 경덕왕의 집념은 대단했다. 굳이 아들을 얻어 왕위를 물려주려고 고집하는 왕은 이미 나이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들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어린 왕의 등장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음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표훈은 天帝의 권위를 빌려 국왕에게 간했던 것이다. 아들을 고집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왕은 표훈의 말을 새겨듣지 않았고, 17년(758)에 아들을 얻었다. 19년(760)년에 세 살 어린 아들 乾

39) 『삼국유사』 권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

40) 『法界圖記叢錄』卷上之一 (『大正藏』45, 721b쪽).

運을 태자로 책봉했고, 765년 6월 왕은 세상을 떠났다. 8세 태자가 즉위하니, 곧 혜공왕(765 - 780)이다. 태후가 攝政을 했지만,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혜공왕 4년(768) 7월에 발생한 大恭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의 96角干이 서로 싸울 정도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780년 2월 金志貞이 모반했다. 金良相과 金敬信 등은 김지정 일파를 진압하면서 혜공왕도 시해했다. 이로써 신라 中代 王室은 마감되고, 下代의 혼란이 시작되었다.

천제에게 청하여 경덕왕이 아들을 얻도록 해준 표훈의 노력을 경덕왕의 전제왕권을 도와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⁴¹⁾ 그러나 이 설화의 전체적 구조로 보거나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던 표훈의 말이 맞았다고 한 평으로 볼 때, 표훈이 아들을 고집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曉諭했음에도 왕이 고집을 버리지 못한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⁴²⁾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아무튼, 표훈은 불국사에 거주할 때 항상 天宮을 왕래했다고 할 정도로 그의 法力은 소문나 있었기에 경덕왕이 그의 법력에 의지하여 태자를 얻어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 의하면, 8세기 중반 표훈은 신라의 대표적 고승이었음에 분명하다.

V. 맺는말

표훈은 의상의 十大弟子는 물론 뛰어난 4명의 제자, 즉 四英 중의 한 명이기도 했다. 『法界圖記叢髓錄』에 수록된 『大記』 및 『古記』가 전하는

41) 이기백, 「景德王과 斷俗寺 怨歌」 『한국사상』5,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217쪽.

42) 졸저, 앞의 책, 1991, 287쪽.

표훈과 의상의 문답 기록으로 표훈이 의상의 직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표훈의 활동이 돋보이는 시기는 8세기 중반인 경덕왕(742 - 764) 때다. 그는 750년 무렵에 황복사에서 大正을 만났고, 757년경에는 경덕왕을 만났으며, 760년에는 황복사에서 화엄을 강의했다. 표훈이 의상 문하에서 수업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덕왕 때의 그의 나이는 70대, 혹은 80대 정도의 노령이었을 것이다. 의상이 入寂한 702년에 표훈의 나이가 20세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가 황복사에서 강의하던 때는 78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3세의 고령이던 805년 당시까지도 전교 활동을 했다는 신라의 밀교승 義林⁴³⁾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만, 아마 표훈도 장수했던 것 같다. 화엄에 관한 표훈의 견해는 훗날의 여러 저서에 인용되면서 영향을 주었고, 김대성의 불국사와 석불사 창건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자문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얻어 후사 잇기를 열망하고 있던 경덕왕에게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天宮을 왕래하는 法力의 소유자로, 혹은 신라의 마지막 聖人으로 존송되기도 했다. 표훈이 興輪寺金堂十聖 중의 한 분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것도 신라 중대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높은 위상 때문이었다.

43) 『傳敎大師全集』5, 16쪽.

【참고 문헌】

1. 저서

- 李基白,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金福順,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1990.
金相鉉, 『신라화엄사상사』, 민족사, 1991.
全海住, 『의상 화엄사상사 연구』, 민족사, 1993.
金福順, 『한국고대불교사연구』, 민족사, 2002.

2. 연구 논문

- 李基白, 「景德王과 斷俗寺 怨歌」 『한국사상』5, 1962.
金福順, 「表訓」 『伽山學報』3, 1994.
金相鉉, 「삼국유사 의상 관계 기록의 검토」 『사학지』28, 1995.

Abstract

A Study on a Great Monk Pyohun of Hwaeomjong in the Middle Period of Silla

Kim, Sang-hyun

Pyohun(表訓) is a notable eminent monk in the Buddhist history of mid - Silla. However, it is not easy to identify his whole life systematically because data about him are fragmentary. Moreover, data relating to whole life of Pyohun appears scattered over nearly 100 years from 676, the 16 years of munmuwang(文武王) when Uisang(義相) had built Buseoksa(浮石寺) and started to concentrate on his missionary work, until the reign of Kyongdokwang(景德王). Even, the claim that pyohun is not immediate disciples of Uisang was emerged due to this problems. Is really not Pyohun an immediate disciple of Uisang?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tried to investigate his status in the Buddhist history of mid - Silla, by not only inquir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pyohun and Uisang, but also thoroughly examining for the survival times and the important activities of pyohun.

Pyohun is one of the ten disciples who were directly taught from Uisang. This fact is identified by the dialogues between pyohun and Uisang, written on 『Daegi(大期)』 and 『Gogi(古記)』. However, the time when the most remarkable activities of pyohun revealed was eight mid - century(742~764, the reign of gyeongdeokwang. He had met Daejeong(大正)

at Hwangboksa(皇福寺) in nearly 750, had met gyeongdeokwang around 757 and lectured Hwaem(華嚴) at Hwangboksa in 760. Considering that Pyohun was taught from Uisang, his age in the reign of Kyongdokwang might be seventy or eighty years old. Assuming Pyohun was twenty years old in 702 when Uisang passed away, the time he lectured at Hwangboksa was the age of 78. Perhaps pyohun seemed to have a long life. Pyohun had actively consulted when Kim Dae - seong(金大城) built Bulguksa(佛國寺). And he pointed out to gyeongdeokwang who was eager to have a son and hand over the throne to him that the country might fall into chaos. He got respected as the last saint of Silla. Pyohun included as one of the ten saint of the main building in heungryunsa(興輪寺) because of his high position in Buddhist history of mid - Silla.

Key Words : Pyohun(表訓), Uisang(義相), Daejeong(大正),
Gyeongdeogwang(景德王), Bulguksa(佛國寺), Hwangboksa(皇福寺)

논문 투고일 : 2013. 7. 15

심사 완료일 : 2013. 8. 1

게재 확정일 : 2013. 8. 12